

무(無)의 바다

| 슈리 폰자 | 김병채 옮김 |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분명히 볼 때 그는 이미 '그것'으로 존재함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질문을 하며 깨어 있고자 합니다만 제 마음은 청룡열차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신체에서조차 수많은 공포들과 걱정들이 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 십년 간을 노력했으며 영적 도서들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생각들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으로 우리는 그대의 마음을 다룰 것입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이 ‘나’는 전체 현상과 관련 있으며, 그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잠시 동안 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나’를 본 후 이것이 일어나는 곳을 나에게 말하십시오. 이 ‘나’ 속으로 뛰어드시십시오. 이 ‘나’보다 더 이전에 있었고, 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 개인적인 이름들과 모습들을 지닐 때, 이 ‘나’는 바다의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생겼습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근원에 있으며, ‘나’의 근원은 아무것도 아닌, 무(無)입니다. 이 무 속에 ‘나’는 더 이상 없으며, ‘나’가 없을 때 더 이상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현상계 또한 없습니다.

이 무(無)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봅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한계도, 시간도, 마음도, 상태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無)인 그대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곳도 이곳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그대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알 가치조차도 없는 것을 아는 데 대한 자만을 심어주어, 그대의 자아를 팽창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마음, 자아, 몸에 대한 그대의 관념들 모두를 던져 버리십시오. 관념들을 없앤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 말해보십시오. 홀로 있는 그것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의도도 지니지 마십시오. 해답을 찾겠다는 의도조차 가지지 마십시오. 그대는 총을 쏘았습니다. 이제 총알이 목표를 찾도록 내버려두십시오. 그대가 목표물이며, 총알은 총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찾아내십시오. 이 무(無)로부터 무엇이 일어나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무(無) 밖에서 생각들이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들은 들어와서 무(無)를 혼란시키려 합니다.

안에서 생각들을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은 밖에 있는 개들에 불과합니다. 이 개들은 돌아와서 그대에게 키스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대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개들 중 한 마리와의 키스가 그대를 물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개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이 개들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대는 개가 아닙니다. 개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개들이 있는 곳을 말해보십시오.

늘 들어오게 했던 개 한 마리가 있음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난 아마도 이것을 하지 못 할 거야! 나는 걱정 없이 있기는 어려울 거야!”라는 개입니다.

이 개의 주인을 알아내십시오.

개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 또한 개입니다. 무(無)로서 무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지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말하십시오.

두려운 개의 말을 들으려는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는 제가 이 무(無)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무(無)를 바로 떠나기 위해서는 그대는 무(無)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에서 발을 떼어 무를 거쳐 그대의 발을 내려놓습니다. 무 바깥으로 그대의 발을 떼어놓는다면 어디에 그것을 놓으려합니까?

밖을 향한 발걸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발걸음은 생각입니다. 발걸음을 떼어, 어디를 거쳐 어느 곳에 내리립니까? 무(無)에서 발을 들었다면 그대는 어디에 발을 디디려합니까? 그 다음 발은 어디에 두려합니까? 그대 뒤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 발의 위와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무에는 아무런 경계도, 한계도, 개념도, 관념작용도 없습니다. 이 무는 오점 없이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뛰지 않는 상태로 걸어 나와 보십시오. 계속 걸어 나오십시오. 이 무에서 달려 나오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잡아챘습니다!

그대는 무(無)라는 바다에 있습니다. 이 무의 바다에서 팔을 뻗어 무엇인가를 잡았다면 손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히말라야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물일 것입니다! 저는 무를 얻었습니다만, 무는 사라집니다. 아마도 제가 무가 되어야……

“~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은 오직 물입니다! 와서, 머물고 가는 것은 오직 물, 오로지 무입니다. 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파도도 물입니다! 무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도 모두 무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무였고, 지금도 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가

바로 그대입니다! 무의 상태로 머무르십시오! 무로서 머무르십시오.
이제 무로 머물면서, 주위를 보고, 관찰하고 질문하십시오.

찌꺼기 같은 어떤 느낌이 이 몸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합니다.

아무런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들은 ‘나’ 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감각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그냥 개념에 불과한 ‘나’입니다. 몸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조차 생각, 개념입니다. 그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대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개념을 깊게 믿는
까닭으로 자신을 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존재다!”라는
개념으로 “나는 아이이며, 몸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개념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찾아내십시오.
이 몸, 이 마음, 이 개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은 ‘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모든 신들, 천국, 지옥, 행성,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먼저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이 개념이 지금 일어나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대는 잠자는

상태로 가야겠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약간의 평화와 휴식을 얻고자 결정하고는 그대는 모든 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대는 도시와 친구들을 떠나 그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는 그대의 가족을 뒤로하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을 거절하고는 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로 가서는 배우자를 뒤로하고 그대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몸조차 뒤로하고 그대는 오직 그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대는 그대의 마음과 ‘개들’조차 거절한 후에야 평화로운 잠을 잡니다. 그대가 잠자는 시간이 오후 11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0시 59분 59초에 그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일 초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9분 59초에 개들은 그대 주위를 서성입니다. 개들을 그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들을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59초가 지나갔고, 개들도 가버렸습니다. 60초 또한 가버렸습니다. 자, 이 이후의 ‘시간’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이 이후에 그대의 손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친구, 현상계, 마음, 그리고 몸이 남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버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모든 것이 가버렸습니다. 가버린 것을 알기 위해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 공간입니다! 그대는 깨어있는, 잠자는, 그리고 꿈꾸는
상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대는 깊은
수면중에도 완전히 의식인 채로 있는 그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대는 말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누가 깨어있습니까? 그대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으면서 거기에 아무도 없었음을 알고 있는 이 의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수면을 즐기는 이 의식은 누구입니까? 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공간, 거대한 공간입니다!

훌륭합니다! 수면 상태의 '공간'과 수면 전후의 '공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꿈의 상태들이 일어나는 이 '공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공간들' 간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공간이 세 상태 모두에 있는 듯합니다. 공간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간은 같습니다! 이 손과 저 손안에 있는
공간은 같으며 모든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공간 역시 같습니다. 손은
다를지라도, 공간은 같습니다.

그대는 그 공간입니다! 그대는 깨어있는, 잠자는, 그리고 꿈꾸는
상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대는 깊은
수면중에도 완전히 의식인 채로 있는 그것입니다. 이 오점 없이
깨끗한 스크린 위로 모든 상태와 그 상태 안의 모든 것들이

투사됩니다. 그대는 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에는 아무런 주체도 대상도 없습니다. 이 스크린, 이 공간은 객관적인 것에도, 주관적인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스크린이나 공간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는 스크린입니다. 개들을 짓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폭풍, 화재, 로맨스,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투사됩니다. 내버려두십시오. 스크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스크린이 바로 그대입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그대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 위를 걸으십시오. (웃음) 그대는 이 행성을 얻지도 가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개념들이 모두 가버렸습니다. 개들이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 행성 위에서 매우 훌륭히 살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이 천국인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대는 오직 이것을 그냥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대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에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가든 나오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에 흔들림 없는 명상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명상은 항상 있었고 지금에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끝) 

- 이 글은 「그대는 신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네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슈리 폰자**(Sri. H. W. L.) | 1910년 10월 13일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9세 때 사마디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신들, 즉 크리슈나, 람, 시따, 락슈만, 하누만, 쉬바, 예수, 성모 등을 만났다. 1944년 그의 스승인 라마나 마하리쉬의 부름을 받아 만나고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인간 탄생만으로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하다며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불꽃을 던져 주어 그들을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 놀라운 경험은 현신자가 그의 현존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아쉬람을 갖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스승의 삶을 살았다. 1997년 6월 몸을 버리고 마하 사마디에 들었다.

역자 | **김병채** | 갠지스 강가에서 슈리 폰자를 만나 깨달음에 이르러 라마나 마하리쉬를 잇는 스승이 되어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을 열고 있다.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그대는 신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저자 슈리 폰자 | 역자 김병채 | 출판사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

정가 15,000원



자유와 사랑을 찬양하는 슈리 폰자의 말씀들!

보이지 않는 아쉬람을 갖고서 보이지 않는 스승의 삶을 살다간 슈리 폰자가 전하는 『그대는 신이다』. 1910년부터 1997년까지 북인도에서 살았던 저자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자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노래들을 엮은 책이다. 우리를 침묵 속에, 자유 속에, 진리 속에, 고요 속에, 크리슈나 속에 놓아 버리는 말들을 통해 여태껏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진정으로 누구인지 탐구하도록 도와주며, 작은 순간이라는 영원 속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지혜에 이르도록 독려한다. 우리가 순수 의식일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할 수 있다.